



9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현황

최 원 선임연구원

- 한은에 따르면 2011년 9월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·대출금리와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·대출금리가 모두 전월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.
 - 2011년 9월 중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의 경우 연 3.71%로 전월대비 6bp 하락하였고, 대출금리의 경우도 연 5.76%로 8bp 하락하였으며, 저축성수신금리와 대출금리 차는 2.05%p로 전월대비 2bp 축소됨.
 - 저축성수신금리의 경우 순수저축성예금금리(-5bp) 및 시장형금융상품금리(-7bp)가 모두 하락함에 따라 6bp 하락함.
 - 대출금리의 경우 가계대출금리 상승(+8bp)에도 불구하고, 공공 및 기타대출 금리(-60bp)와 기업대출금리(-5bp)가 하락함에 따라 8bp 하락함.
 - 2011년 9월 말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의 경우 연 3.10%로 전월대비 1bp 하락하였고, 총대출금리도 연 6.08%로 1bp 하락하였으며, 총대출금리와 총수신금리 차는 2.98%p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남.
- 2011년 9월 중 비은행금융기관 예금금리의 경우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 전월보다 하락한 반면 신용협동조합이 소폭 상승하였으며, 대출금리의 경우 신용협동조합이 하락한 반면 상호저축은행이 전월과 동일하고 상호금융은 소폭 상승함.
 - 상호저축은행 예금금리는 연 5.14%로 전월대비 22bp 하락한 반면, 대출금리는 전월과 동일한 연 16.71%를 나타냄.
 - 신용협동조합 예금금리는 연 4.69%로 전월대비 1bp 상승한 반면, 대출금리는 연 7.2%로 7bp 하락함.
 - 상호금융 예금금리는 연 4.34%로 전월대비 1bp 하락한 반면, 대출금리는 연 6.22%로 1bp 상승함.

(2011년 9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, 한은, 10/29)